

■ 주요 내용 ■

□ 2000년 상반기 경제 특징

- (실질적 성장 국면 지속) 99년 성장의 주요인이었던 기술적 반등 효과가 소멸하면서 실질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. 반면 각종 실물 지표들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
- (수출과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성장) 소비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던 99년의 성장과는 달리 최근의 성장은 수출 및 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
- (금융 불안의 지속)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현상을 나타냄
- (경상수지 흑자 대폭 감소) 원유가 상승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음

□ 하반기 경기 특징

- (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 가능성) 현재 경기는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물 지표의 둔화 및 금융 시장의 불안 지속으로 인해 올 하반기 이후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
- (하반기 성장률 6%대로 하락)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경제성장률이 6%대로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
- (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 증가율 지속) 하반기 들어서도 대외여건의 호전으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중 무역수지 흑자 폭이 50억 달러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
- (비용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 가시화) 수요 측보다는 비용 측 요인에 의해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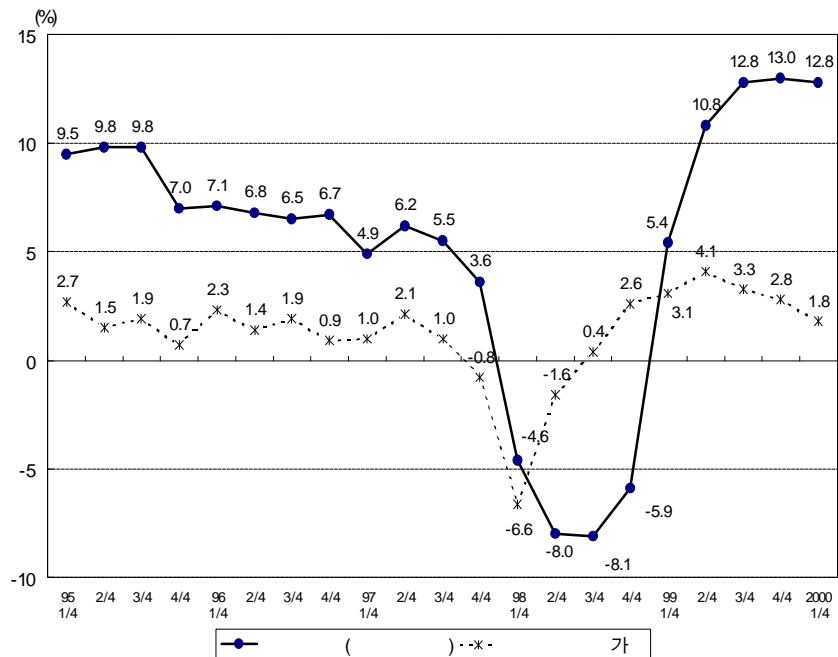
1. 국내 경기

1. 2000년 상반기 경제 평가

○ 상반기 경기 개관

- (실질적 성장 국면 지속) 99년 성장의 주요인이었던 기술적 반등 효과가 소멸 하면서 실질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
 - 2000년 1/4분기 실질국내총생산(GDP)이 작년 동기대비 12.8% 증가하는 등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
 - 특히 99년 2/4분기 이후 10%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등 98년의 급속한 위축에 의한 기술적 반등 차원을 넘어서는 실질적 성장 국면에 진입함
 - 1/4분기 중 산업생산도 23.4%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고수준도 99년 5월 이후 증가세를 보여 생산확대-재고 증가라는 경기 상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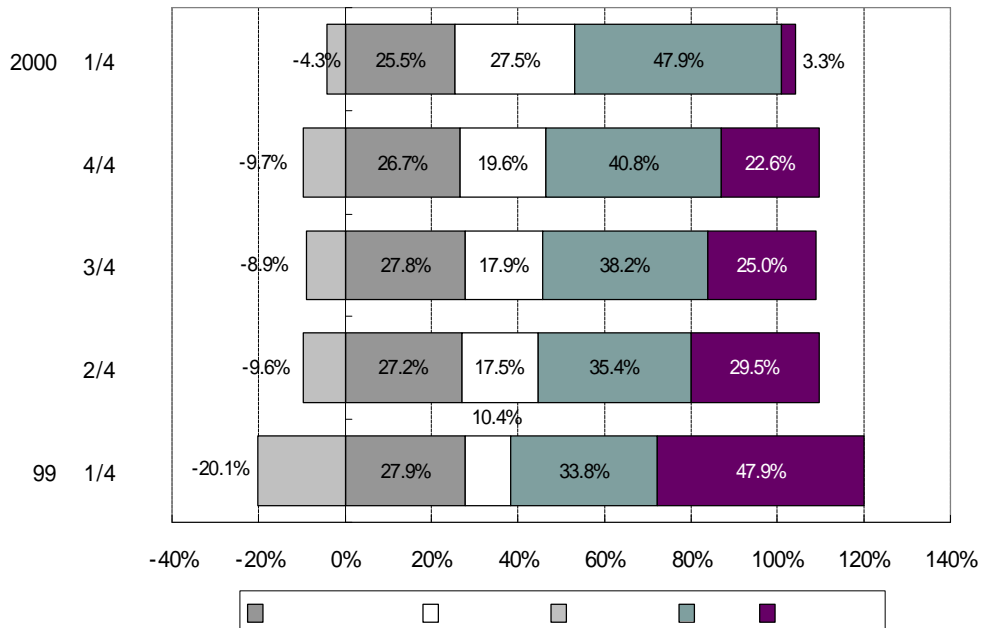
< 경제성장률 추이 >



○ 상반기 경제 특징

- (물가 안정 속의 고성장 이룩) 5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.4%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 속에 10% 이상의 고성장을 이룩
 - 시장 개방 확대와 업체간 경쟁 심화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와 정부의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억제 등이 물가 안정의 주요인으로 작용
- (수출과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성장) 소비 증가에 의해 주되되었던 99년의 성장과는 달리 최근의 성장은 수출 및 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
 - 1/4분기 국민계정을 살펴보면 설비투자가 63.6%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11.2% 늘어난 가운데 상품 수출이 28.6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주도
 - 성장 기여율을 보면 수출이 47.9%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가 27.5%, 민간소비가 25.2%로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음
 - 한편 99년 중 20%이상을 기록하였던 재고 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2000년 들어 대폭 감소하면서 기술적 반등효과가 거의 소멸되었음을 나타내내고 있음

<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율 추이 >



-
- (성장 속도의 둔화) 각종 실물 지표들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
 - 전분기 대비 계절변동조정 실질 GDP 증가율도 99년 1/4분기 3.1%, 2/4분기 4.1%, 3/4분기 3.3% 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4/4분기(2.8%)에 증가세가 둔화된 이후 올해 1/4분기에는 1.8%로 더욱 낮아지고 있음
 - 1/4분기 중 23.4%의 높은 증가율은 보이던 산업생산 증가율도 4월 들어 16.9%를 기록,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
 - (금융 불안의 지속)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현상을 나타냄
 - 이에 따라, 현재의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부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신용 차별화 현상이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
 - 새한그룹 워크아웃과 일부 대기업의 자금난 이후 기업들의 신용위험 불안이 불식되지 못함에 따라, 만기 도래 회사채 물량이 6~7월중 8.7조원, 연말까지 30조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기업의 자금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

 - (경상수지 흑자 대폭 감소) 원유가 상승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음
 - 4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99년 동기(78.2억 달러)의 135 수준인 10.3억 달러에 불과하고 특히 4월 중에는 97년 10월(4.9억 달러 적자) 이후 처음으로 2.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

○ 현재 경기 평가

-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경기 과열을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
 - 오히려 금융 불안 지속 등 불안 요인이 표면화 되고 있어 경기의 조기 하락 반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

2. 하반기 이후 경제 전망

○ 하반기 경기 개관

- (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 국면 진입) 현재 경기는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물 지표의 둔화 및 금융 시장의 불안 지속으로 인해 올 하반기 이후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

① (전분기 성장률의 둔화) 12.8%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던 1/4분기 중 전분기 성장률은 1.8%를 기록, 전분기(2.8%)에 비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

· 99년 중 전분기 성장률은 1/4분기 3.1%, 2/4분기 4.1%, 3/4분기 3.3%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4/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
· 전분기 성장률이 1/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7.4% 정도임. 1/4분기보다 다소 높은 2.0%를 기록할 경우 연간경제성장률이 8.0%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전분기 성장률의 하향 추세를 감안 할 경우 가능성이 희박함

② (실물 지표의 둔화)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던 산업생산 및 도소매 판매 증가율이 4월 들어 크게 둔화되고 있음

· 3월 이후 산업 생산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 도소매 판매 및 투자 지표들의 증가세 둔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2/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

· 1/4분기 중 23.4%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산업생산은 4월 들어 16.9%를 기록,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었으며 도소매 판매 증가율도 1/4분기 14.4%에서 4월에는 11.4%로 둔화됨

③ (기술적 반등 효과의 소멸) 99년 중의 높은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던 기술적 반등효과가 2/4분기 이후 소멸될 것으로 보임

· 1/4분기의 높은 성장률이 상당 부분 99년 1/4분기의 낮은 성장률(5.4%)에 기인하는바가 큰 것을 감안 할 경우 2/4분기 이후 성장률은 두자리 수 이상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임

-
- 또한 99년 중 20%이상을 기록하였던 재고 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2000년 들어 대폭 감소하면서 기술적 반등효과가 거의 소멸되었음을 나타나내고 있음. 이러한 재고 투자의 성장 기여율 하락은 2/4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

④ 금융 불안의 지속

- (금융 불안의 지속으로 인한 실물 경색 발생 가능성)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현상을 나타나고 있어 기업들의 흑자 도산이 우려됨
 - 이에 따라, 현재의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부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신용 차별화 현상이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
 - (채권시장 수급 불안) 새한그룹 워크아웃 이후 기업들의 신용위험 불안이 불식되지 못함에 따라, 만기 도래 회사채 물량이 6~7월중 8.7조원, 연말까지 30조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기업의 자금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
 - (기업들의 흑자 도산 우려) 기업들의 자금난이 금융권 전반의 신용 경색으로 확산될 경우 수익을 내고있는 기업들의 연쇄도산마저 우려됨
- 특히 내년 이후 소비 및 설비 투자 증가세 둔화, 건설투자의 회복 미미, 원화 절상 등에 의한 수출 부문의 성장 탄력 상실 등으로 성장 견인 요소들이 소멸될 경우 경기가 급냉할 수도 있음

○ 하반기 경제의 특징

- (하반기 성장률 6%대로 하락)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소비 및 설비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경제성장률이 6%대로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
 - 대외 여건의 호조 지속으로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원화 강세의 지속이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
 - 2000년 경제성장률은 99년(10.7%)에 비해 크게 둔화된 7.8%에 그칠 전망이며, 뚜렷한 성장 동인이 없는 2001년 들어서는 5.5%수준에 그칠 전망이다

- (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 증가율 지속) 하반기 들어서도 대외여건의 호전으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중 무역수지 흑자 폭이 50억 달러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
 - 하반기에도 원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, 설비투자 증가세 지속, 수출 호조에 다른 원자재 수입 증가 등으로 수입 급증세는 이어질 전망이다
- (비용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 가시화) 수요 측 보다는 비용 측 요인에 의해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
 -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, 임금 상승 등으로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전망이다

< 하반기 및 2001년 경제 전망 >

구분	1999년	2000년			2001년	
		상	하	연간		
국민 계정	국내총생산(%)	10.7	9.5	6.4	7.8	5.5
	총소비(%)	8.5	8.2	5.5	6.8	5.1
	민간소비(%)	10.3	9.5	6.3	7.9	5.8
	총고정자본형성(%)	4.1	15.8	10.4	12.9	7.4
	건설투자(%)	-10.3	-4.3	6.4	1.5	9.6
	설비투자(%)	38.0	46.2	16.5	30.3	4.8
대외 거래	경상수지(억 달러)	250	36.0	54.0	90.0	-8.0
	무역수지(통관기준)	239	30.0	50.0	80.0	6.0
	수출(억 달러)	1437	821.0	840.0	1661.0	1822.0
	(증가율, %)	(8.6)	(24.4)	(8.1)	(15.6)	(9.7)
	수입(억 달러)	1198.6	791.0	790.0	1581.0	1817.0
	(증가율, %)	(28.4)	(45.6)	(20.7)	(32.0)	(14.9)
가격 지표	소비자물가(평균, %)	0.8	1.4	3.2	2.3	3.5
	회사채수익률(평균, %)	8.8	10.0	10.2	10.1	10.0
	원/달러 환율(평균)	1189	1120	1100	1110	1070
	실업률(평균, %)	6.3	4.5	3.6	4.0	3.4